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Original Form of Castle Town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Eupchi* Landscape in Naepo Area, Korea

전종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hilotopoer@yahoo.co.kr)

한반도의 서·남해안 일대는 방어 상의 이유와 넓은 하안 충적평야, 해안 저지대의 농경제적 가치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읍성 축조가 이루어졌다. 내포지역은 그러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내포지역의 읍치 경관 원형은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성문을 가지면서 배후의 客舍群과 전면의 衙舍群 景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방위와 길흉의 연관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나 권력의 자연화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권력관계, 읍성의 주요 기능에 따라 경관 요소별 비중과 공간 배치는 지역적으로 차별적이었다. 즉, 전통적인 읍치 공간은 일정한 원칙 하에 조형되면서도 국지적 단위의 시·공간성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기의 읍치는 중앙 권력을 상징하는 거점이었지만, 다른 편에서 촌락의 사족들에게는 하급 관료의 근거지, 멸시의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기의 읍치는 신성함과 세속성이 공존하던 장소였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전통적 읍치가 통치·행정 치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자본 축적의 중심, 경제와 교육의 거점, 촌락 공간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전통시기 사회공간적 구별짓기의 상징이었던 성곽의 훼철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읍성안 전통 경관의 변형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기능상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건물이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능을 상실하거나 퇴폐한 전통 경관에 대해서는 보존의 이유가 없었다. 이 때 조선왕조의 국유지는 지방 정부, 일본인, 공공 기관 등 세 개의 주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읍성 진입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되었다. 내포지역에는 개항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읍성안 토지 장악은 주요 개항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었다. 서산 읍성의 경우, 1910년대 초반부터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타일본인 소유지, 심지어 田地 혹은 國有地를 점유하는 등 상당한 침투력을 가지고 급속히 전개되었다. 더욱이 읍성 공간을 천한 공간으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은 조선인들의 신속한 읍성 이탈을 부추긴 반면, 읍성 공간이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성과 서비스 업에 터한 풍부한 자본력은 일본인들의 광범위한 토지 점유를 가속화한 흡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형태와 기능상의 변혁이었음은 물론이고 매우 급격한 사회공간적 재편이었다.